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 4 pp. 62-68, 2024

https://doi.org/10.5762/KAIS.2024.25.4.6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그릿과 학교적응의 구조연구

김지숙[1], 김정은[2*]
[1]위덕대학교 간호학과, [2]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ructural Study of Self-Esteem, Academic Stress, Grit, and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i-Suk Kim[1], Jung-Eun Kim[2*]
[1]Division of Nursing, Uiduk University
[2]Division of Social Welfare, Uid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스트레스, 그릿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의 구조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357명의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였으며 SPSS 21과 AMOS 21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자아존중감 및 그릿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구조모형은 모두 양호한 적합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들은 모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cademic stress, and grit, which affect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identify their structural relationships.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s Panel, which surveyed 1,357 sixth graders, was us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 and AMOS 21 softwa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grit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stress. Second, when all the factors affec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were considered and analyzed, the structural model showed a good fit. Finally, all the variables were found to be directly related to each other, and the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a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nd an in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through the mediation of academic stress and grit, respectively.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terventions relating to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IT, Medium Effect,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본 논문은 위덕대학교 교비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une-Eun Kim(Uiduk Univ.)
email: Jekim@uu.ac.kr
Received February 5, 2024 Revised March 5, 2024
Accepted April 5, 2024 Published April 30, 2024

1. 서론

초등교육은 국가마다 입학 연령, 학습 내용, 수업연한 등에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생에게 학교는 가정에서 나와 처음으로 만나는 공식적 사회로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인생 전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 문화, 가치관, 사회성 등을 습득하는 중요한 장소이다[1].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부과하는 규칙 속에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독립된 한 인격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2]. 학교생활의 첫 출발점이 되는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성인이 된 이후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장애와 함께 가족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만[3]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면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적응과 삶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화시키거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려는 적극적인 과정이다[5]. 학교적응은 학교에 대한 태도, 동기 등이 긍정적이며 학업성적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의미를 가지며 성공적인 사회로의 적응을 예측할 수 있다[6]. 학교 부적응 초등학생은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6,7],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며[7] 가치관과 자아개념 형성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지는바[8]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7].

초등학생은 아직 성장발달과정 중에 있으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그들의 자아개념과 자아상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9].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감정, 태도, 평가, 가치 판단기준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적응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8]. 자아존중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학교적응의 예측요인이며[10,1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2,3,6,8,10], 또래관계와 스트레스 저항력이 높아져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2] 고통과 역경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환경을 극복한다[11].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13],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과 학교적응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6,9,14].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접 요인이면서 매개 역할을 한다[15]. 특히 학교적응에 미치는 변인들 중 개인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6,8], 부모, 또래, 가정 환경적 요인[2,6,12]도 있지만 자아존중감이 가장 강한 영향요인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2,9].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의 또다른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제안한다[16-18]. 현대사회의 과도한 학업열기와 성공지향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초등학생의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높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18]. 학업스트레스는 성별, 지역을 막론하고 학령기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스트레스 요인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19,20]. 특히 초등학생은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자기조절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학업 중단, 학교 부적응뿐 아니라 비행,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진다[19].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대감,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하고[20]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16].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16-20] 이를 주요 변인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학교에서 또래 관계, 학업적 열정과 성공을 돕는 긍정적 예측 변인으로 그릿에 주목하고 있다[21,22]. 그릿(GRIT)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말한다[23]. 그릿은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함께 겪으면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주목해야 할 개념으로 강조한다[1]. 그릿은 OECD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회·정서 역량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24] 학업 성취와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며 인지적 특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설명이 가능한 유용한 변인이다[25]. 그릿이 심리적 불만족,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으며 특히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매개변인으로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2].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적이 향상되며[26]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6,19,25]. 또한 학교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그릿은 학업태도, 학교 규범 준수 노력과 학교생활에 흥미를 높이는데도 기여한다[26]. 그러나 일상적 스트레스 전체에서는 그릿이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와[27] 그릿이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교적응에 예측 변인으로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어[28] 그릿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29].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이 높아지며,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학교적응에 순차적으로 매개한다[30]. 그릿이 높은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을 때는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고도 하였다[28]. 그릿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학업성취에 주요 예측 변인[31]이며 자아존중감이 그릿을 매개로 하여 학업열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32]가 있어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간의 효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초등학생의 발달연령에 부합되는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그릿,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변인 간의 구조화된 모형을 확인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의 차별화된 학교적응 중재 방안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II)는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부터 추적하여 조사하는 유일한 종단패널 연구로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다. 2008년도에 2008년생 2,078가구를 원표본으로 1차 조사를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150명의 전체표본을 수립하였으며, 패널아동이 만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본연구의 대상자는 2020년에 실시된 13차년도 조사의 데이터를 1차 클리닝을 마치고 검토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1,3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 측정도구

학교적응에 관한 문항은 “민병수 (1991)의 학교생활적응의 연구를 기반으로 총 21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는 학습활동적응, 학교규칙적응, 친구관계적응, 교사관계적응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적응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0.856 이다. 자아존중감은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0.895 이다. 그릿(GRIT)은 김희명・황매향(2015)의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GRIT)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0.694 이다.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문항에서 추출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02이었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들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1.0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간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효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여자가 668명(49.2%), 남자가 689명(50.9%)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689(50.9)
	Female	668(49.3)

본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평균 2.89(SD .343)이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3.31(SD .555), 그릿은 평균 3.16(SD .558)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M	SD	Ske	Kur
Self-Esteem	3.31	.555	-.628	.414
Academic stress	2.28	.909	.370	-.427
GRIT	3.09	.529	.146	.247
School Adjustment	2.98	.343	.107	.116

3.2 변인간의 상관관계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그릿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r=.458(p<.001), 그릿의 관계는 r=.326(p<.001),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는 r=-.304(p<.001)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관계는 r=.292(p<.001),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는 r=-.377(p<.001)로 나타났고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관계는 r=-.377(p<.001)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constructs

	1	2	3	4
Self-Esteem(1)	1			
Academic stress(2)	-.377**	1		
GRIT(3)	.292**	-.368**	1	
School Adjustment(4)	.458**	-.304**	.326**	1

3.3 측정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1767.732(df=165, p=.000), TLI=.833, CFI=.855, RMSEA=.085로 나타났다[Table 4].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Table 4. Structural Model Analysis

χ^2	df	p	TLI	CFI	RMSEA
1767.732	165	.000	.833	.855	.085

측정모형에 설정된 각각의 경로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를 [Table 5]와 같이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β=-.422, p<.001)과 그릿에 미치는 영향(β=.488, p<.001),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모두 유의하였다(β=.264, p<.001).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β=-.133, p<.001)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자아존중감과 그릿은 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업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Structural Model Path Analysis

	B	S.E	β	C.R
Self-Esteem →Academic stress	-.673	.050	-.422	-13.413***
Self-Esteem →GRIT	.381	.034	.488	11.249***
GRIT →School Adjustment	.396	.038	.476	10.383***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171	.022	.264	7.627***
Academic stress →School Adjustment	-.054	.012	-.133	-4.465***

자아존중감이 그릿에 미치는 총효과가 .381로 나타났고,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673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총효과는-.054, 그릿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396,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요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경우 직접효과가 .171이며, 간접효과가 .187, 총효과는 .359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Verification of Direct and Indirect of Structural Models.

Matric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elf-Esteem →Academic stress	.673	-	-.673
Self-Esteem →GRIT	.381	-	.381
GRIT →School Adjustment	.396	-	.396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171	.187	.359
Academic stress →School Adjustment	-.054	-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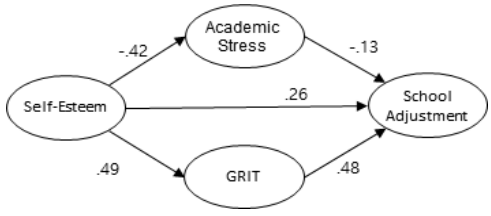


Fig. 1. Structural model

4.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그릿,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의 영향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평균 2.98(SD .343)이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3.31(SD .555), 학업스트레스 평균

2.28(SD.909), 그릿은 평균 3.09(SD .558)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3.12[2], 2.99~3.84[33], 자아존중감 평균 3.16[2], 2.55~3.65[33], 학업스트레스 평균 2.47[20], 그릿 평균 3.18[29]로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사회로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중요한 시기인만큼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그릿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는 초등학생부터 학년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과 구조적인 효과를 확인한다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근거자료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r=.458 (p<.001),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r=-.304(p<.001), 그릿과의 관계 r=.393 (p<.001)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그릿간의 관계는 r=.392 (p<.001)로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관계는 r=-.377(p<.001)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은 부적상관관계가 있고[34]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간의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33]와 그릿과 학교적응간에 정적 상관이 보였다[29,34]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 대한 양상도 달라지고[6]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릿과 학교적응은 낮아진다[34]. 그릿은 학교적응뿐 아니라 사회 정서 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29]. 또한 위기 청소년들의 그릿이 학교적응 유연성 향상에 기여된다는 연구[26]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릿을 통해 학교적응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지원과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초등학생 초기경험이 다음 발달단계로의 전환기로 심리적 신체적 변화와 함께 물리적인 변화에도 적응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학업 스트레스의 비중도 점점 높아진다[18,20]. 학업스트레스는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초기 경험의 결정적 요인이며 학년에 따른 차이와 환경조건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므로[11]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기위해 학교적응과 정적관계가 있는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향상을 유도한다면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측정모형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그릿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두 유의하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그릿과 학교적응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가 있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은 약하지만 그릿을 통한 간접영향이 있다는 연구[18], 자아존중감이 그릿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5]와 그릿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30]와 맥을 같이한다. 연구 결과 학교적응을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그릿과 같은 개인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높이기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은 핵심적 변인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은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릿 또한 학교적응에 매개효과가 있고[30]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6]와 그릿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력이 높고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으나[1]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그릿이 학업 성취에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32].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한 바 자아존중감과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분석 연구를 축적하고 특히 그릿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초등학생부터 성공 경험을 쌓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그릿을 발휘하고 발달시키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업스트스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상담과 함께 자아존중감과 그릿 향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학교적응이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아존중감, 그릿과 학교적응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개별화되고 체계화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장기적 목표에 대한 체계적인 달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릿의 관계와 기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각 발달단계별 개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으로 그릿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20년 13차년도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을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학교적응 관련 다양한 변인 간의 변화와 양상을 규명하는 연구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M. G. Song, "A study on the Impact of GRIT up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Adaptation on the Higher Grad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14, pp.77-87, 2022.
DOI: https://doi.org/10.5392/JKCA.2022.22.12.077

[2] S. H. Cho, H. S. Kim,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on School Life Adapt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Vol.16, No.5, pp.355-376, 2016.

[3] K. S. Lee, K. H. Lee, "Effects of Self-Assertiveness on Self Efficacy and School Adaptation in Elementary Students", Vol.17, No.2, pp.71-81,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2.071

[4] R. M. Ryan,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No.68-78, 2000.

[5] J. 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identity by elementary schoolchild and school adaptation : Mediated by Appearance satisfaction,"*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6] S. J. Han, "Factors Influenc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Culture and Convergence, Vol.43, No.6, pp.595-618, 2021.
DOI: https://doi.org/10.33645/cnc.2021.06.43.6.595

[7] G. S. Cho, Y. J.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Mattering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6, pp.477-487,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6.477

[8] J. S. Chun, H. E. Chung, "The Effects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Withdrawal on School Adjustment of Korean Children",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Vol.2, No.1, pp.23-41, 2011.

[9] H. S. Park, "An Exploration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Global Self-esteem over Four Yea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9, pp.19-38,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9.19

[10] M. I. See, H. J. Lee,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pkido Training Participant's Personality and Self-Esteem on School Life Adaptation",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Vol.23, No.1, pp.35-47, 2021.
DOI: https://doi.org/10.35277/KAMA.2021.23.1.35

[11] H. S. Park, S. H. Yang, "The Growth Trajectory of Multicultural Children's Life Satisfaction in Korea", Korean Education Inquiry, Vol.35, No.4, pp.95-121, 2017.
DOI: http://dx.doi.org/10.22327/kei.2017.35.4.095

[12] C. Y. Oh, D. J. Hang, K. R. Oh, S. K. Park,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Sports Club on Self-esteem and Participating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n Aerobic Exercise, Vol.17, No.1, pp.37-46, 2019.
DOI: https://doi.org/10.22997/JCSES.2019.17.1.37

[13] I. S. Lee, K. L. Lee, "The Relationship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chool Maladjustmen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21, No.1, pp.11-22, 2008.

[14] Q. Yang, L. Tian, E. S. Huebner, X. Zhu, "Relations among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school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longitudinal mediation model". School Psychology, Vol.34, No.3, pp.328-340, 2019.

[15] W. Yue, Z. Zexin, D. Xiaoyi, L. Mengsha, L. 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and Social Adaptation among Migrant Children in China: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9, No.23, pp.1-12, 2022.

[16] S. J. Kim, S. H. Kim,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2, pp.49-70, 2015.

[17] ES. Han, "A Structural Analysis of Academic Stress, Media Device Addiction,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Vol.29, No.3, pp.299-318, 2022.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2.03.29.3.299

[18] EK. Kim, "The effects of mother-rearing stress on school adaptation in late childhood: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academic stres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27, No.3, pp.1-16, 2023.

[19] BM. Kim, K. E. Jahng, HM. Oh, "The Moderating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Dependenc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care & Education, Vol.15, No.1, pp.57-73, 2019.
DOI: https://doi.org/10.14698/jkcce.2019.15.01.057

[20] D. H. kim, *"The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 Study-Related Stress and Mental Health"*, Inche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21] MS. Kim, SH. Lee, SH. Paik, Y. S. Choi,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grit scores and their differences across sex and grad",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5, No.5, pp.297-322, 2015.

[22] H. J. Lim, S. R. Lee,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Parents, Teachers, Friends, and Academic Engagement",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31, No.1, pp.109-127, 2020.
DOI: https://doi.org/10.20972/KJEE.31.1.202003.109

[23] C. G. Kim, J. H. Kim, "Mediation Effects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Mindset and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2, pp.945-968, 2020.

[24] OECD, Social and emotional skills constructs and measures for the OECD longitudinal study of skill dynamics. Paris: OECD, 2014.

[25] M. O. Suh,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Grit and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57, No.1, pp.105-130. 2019.

[26] K. H. Jung, S. J. Cho,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grit on school adaptation flexibility in at-risk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1, pp.473-480. 2023.

[27] H. W. Yang, S. K. Nam, "Middle School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Academic Burnout: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Daily Stress and the Gri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7, No.2, pp.71-92, 2019.
DOI: https://doi.org/10.35151/KYCI.2019.27.2.004

[28] P. Bazelais, , D. Lemay, T. Doleck, X. S. Hu, "Grit, mindset, and academic performanc: A study of pre-university science students", Eurasia journal of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Vol.14, No.12, pp.1-10. 2016.

[29] J. S. Kang, G. J. Lee, M. Y. Lee, "The effect of growth mindset on school Life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Vol.3, No.4, pp.23-44, 2022.
DOI: http://dx.doi.org/10.51613/JKYCA.2022.3.4.23

[30] KB. Yun, SR. Lee, "The Effec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and Grit",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13, No.2, pp.23-38, 2023.
DOI: http://dx.doi.org/10.30528/jolss.2023.13.2.002

[31] E.L. Usher, C.R. Li, A.R. Butz, J. P. Rojas, "Perseverant grit and self-efficacy: Are both essential for children's academic succ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11, No.5, pp.877-902, 2019.
DOI: https://doi.org/10.1037/edu0000324

[32] J. Y. Kim, EB. Kim, IS. Lee, "Influence of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for Mental Care on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GRIT and Academic Enthusiasm",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8, No.13, pp.1-13. 2021.

[33] H. Y. Kwon,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Academic Resilience, Basic Psychological Needs at School and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20.

[34] JH. Kim, SB. Kim, IK. Jung,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the school adjustment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4, pp.241-269, 2014.

[35] Y. J. Ha, "The effects of girt on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Differential effects by life-long goal and household income leve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 Vol.24, No.5, pp.1961-1974, 2022.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22.24.5.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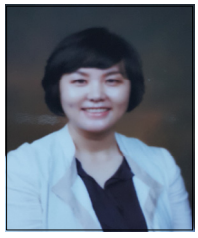
[36] A. Duckworth, J. J. Gross,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23, No.5, pp.319-325, 2014.

김 지 숙(Ji-Suk Kim) [정회원]

- 2014년 8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11월 ~ 현재 :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학, 아동간호와 삶의 질, 시뮬레이션

김 정 은(Jung-Eun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철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집단상담, 치매, 군사회복지